

Patience 인내

성경 본문	야고보서 5:7~11
요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11절)
찬송	212장(통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과의 목표	영적 성장을 위해 인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고, 믿음과 감사와 성품 훈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인내’가 인간 삶의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1. 인내: 믿음 훈련

성경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욥 1:1)라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욥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고, 소유물과 종도 많았으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설명했다(욥 1:2-3). 이렇게 볼 때, 욥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욥에게 불어닥친다. 그는 하루 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된다. 이 일은 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거래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욥 1:6-12 참조), 욥은 자기에게 왜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욥 1:20-22 참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고 있던 신실한 욥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탄이 욥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욥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욥이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고난을 이겨낼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욥이 하는 말을 들어 보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욥 23:13-14).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같은 선상에서,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준다(고전 10:13 참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직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욥에게 잔인한 분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욥을 ‘위한’ 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



님께서 자기를 단련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그를 던져넣어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그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 나라에서 ‘특전사’와 같은 인물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믿음 훈련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욥이 이러한 크기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중상했던 사탄의 코가 납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욥이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은 그의 믿음을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고난)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즉 고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온전해지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은 고난의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믿음을 훈련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인내: 감사 훈련

당신 주변에는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원망이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혹은 성공했을 텐데 라면서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속상해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원망의 대상이 된다. 불평한다는 것은, 특별히 미워하거나 물고 늘어질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푸념하는 것을 말한다. 원망이든 불평이든 모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했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불평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차라리 노예상태로 있을 때가 좋았다며 불평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그들이 법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았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지배를 받으며 사는 노예근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감사를 했겠지만, 상황이 변하면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섰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준다(살전 5:18 참조).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같이 말이다(행 16:16-25 참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범사에 감사를 훈련하며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내는 범사에 감사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3. 인내: 성품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훈련 받았다. 40년 이상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밴 노예적 삶의 방식을 벗어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광야 훈련의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곧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했다(신 8:2-3 참조). 하나님께서 40년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그 기간 동안 훈련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데 그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훈련도 충분치 않았다.

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광야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게 된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인다.

오늘 본문에서 야보고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7절)라고 권고한다.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광야 같이 무더운 여름에 비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과 같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라고 권면한다. ‘힘써 ~ 더하라’는 말씀은 저절로 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를 동원하여 훈련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인내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지녀야 하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겸손함이 없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내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훈련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III. 생각살기

-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당신이 가장 인내하지 못하는 지 나누어 보고, 다음 만날 때 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믿음과 감사와 성품 훈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 봅시다.
-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간략히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